

경제

Biz & Economy

10 광주일보 제17628호 2006년 12월 15일 금요일

| | | |
|--|---|---|
| 주가 +35.10 1,418.38 (코스피지수) | 환율 -1.70 920.80원 (원/달러) | 금리 +0.05 4.81% (3년만기 국고채) |
| 코스닥지수 605.89 (+7.54) | 다우(13일) 12,317.50 (+1.92) | 니스닥(13일) 2,432.41 (+0.81) |
| 낮케이 16,829.20 (+136.27) | 엔-달러 환율(도쿄 17:00기준) 117.45엔 (+0.07) | 유로 달러 환율 1.3217달러 (+0.51) |
| 3년만기 회사채 5.17% (+0.05) | 클로리 4.47% (보합) | |

“창업 스스로 진단하세요” 중기청 ‘자가진단시스템’ 구축 운영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은 예비창업자나 기존사업자가 자신의 적성과 경영능력 등을 스스로 진단해볼 수 있는 ‘온라인 창업 자가진단시스템’을 소상공인종합정보지원시스템(www.sbdc.or.kr)에 구축하고 14일부터 운영에 들어갔다.

이 시스템은 ▲예비창업자=적성검사→입지분석→수익·손익분기점 ▲기존사업자=적성검사→입지분석→수익·손익분기점 진단→경영진단→경영전략평가 등의 절차를 거쳐 진단이 가능하다.

적성검사는 사용자의 성격과 적성을 파악할 수 있는 질문을 통해 사용자에게 가장 적합한 업종을 추천해준다. 입지분석은 사용자가 선정한 점포의 특성을 분석해 점포의 위치선정시 고려해야 할 사항 등에 대한 해설을 제공해준다.

또 수익·손익분기점 진단은 손익분기점 매출액과 해당 업종의 사업성 파악, 경영진단은 업체의 경영상태를 진단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해준다. 특히, 지난 3년간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경영진단을 받은 4천200여개 업체의 자료를 통계화해 비교자료로 제시해준다. 경영전략평가에서는 점포운영과 경영방식에 대한 점검을 통해 부족한 부분을 짚어준다. 한편 이 시스템은 소상공인종합정보지원시스템(www.sbdc.or.kr)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사용자는 전국 59개 소상공인지원센터(1588-5302)의 상담사를 통해 진단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상담이 가능하다. /이종태기자 jitlee@kwangju.co.kr

5만·10만원 고액권 화폐발행 무산

5만원권과 10만원권 등 고액권 화폐 발행 계획이 무산됐다. 국회 재경위 금융소위는 14일 한국은행 고액권 발행을 내용으로 한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한나라당 최경환 의원 대표 발의)에 대해 논의했지만 이 법안을 부결시켰다.

그동안 여야 의원들 대부분이 고액권 발행에 찬성의견을 나타냈기에 무난히 가결될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지만, 막상 회의가 시작되자 여당의원들이 집단적으로 반대하고 나서면서 보류됐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KDI 이건호 교수, 지역자본 光銀 인수 문제점 제기

“토착세력 지방銀 장악땐 건전성 훼손·부실화 우려”

지역 연고자본이 지방은행을 소유할 경우 국가경제 전체적인 시각에서 볼 때 경기순환 대응능력이 떨어지고 지역의 정치논리에 좌우돼 건전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4일 광주무등파크호텔에서 광주상공회의소 주최로 열린 초청강연회에 강사로 나선 이건호(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지역자본에 의한 광주은행 인수전망과 과제’라는 발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교수는 “지역민이 소유하는 지방은행은 대면적(代面的) 고객정보를 통

정부도 광주·경남은행 민영화 의지 없어

한 여·수신을 바탕으로 지역경제 발전에 도움을 준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전제하면서 “일부 토착화 세력이 은행을 좌지우지할 경우 건전성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광주·경남은행 분리매각과 관련, 이 교수는 “공적자금의 회수가 지연되면 서 최근 국회에 매각시한을 얹어주는 법안이 올라와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광

주은행 민영화는 당분간 기대할 수도 없을 지도 모른다”고 밝혔다.

또 이 교수는 “지역자본이 지방은행을 인수하게 되면 여신대상이 여신주체가 돼 주주 구성에 있어서 적격성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이 높고, 지역민들의 실질적 감시기능도 기대하기 어렵다”면서 “지역논리와 금융논리가 부딪치는 해소장치를 마련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14일 광주무등파크호텔에서 열린 광주은행 인수추진 관련 강연회에서 150여명의 참석자들이 이건호 교수의 강연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최현태기자 choi@kwangju.co.kr

여수산단 유희업체 내년에도 고전

고유가·환율하락에 중국산 저가품 공세 밀려

여수국가산단단지내 석유·화학 업체들이 고유가와 환율 하락 등의 영향으로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고전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14일 여수산단 유희업계에 따르면 수출 비중이 높은 업계 특성 때문에 달러 약세가 수익 감소로 이어지면서 내년도 순이익이 올해에 비해 크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중국의 저가 제품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LG화학 여수공장의 경우 달러 환율 하락에 따른 채산성 악화로 내년도

실적이 올해의 절반 정도에 그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생산 원가를 고려할때 이 회사에서 자체 산출한 손익 분기점은 950원 수준. 하지만 현재 환율이 920원대에 머물고 있고 이같은 환율 약세가 내년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절치부심할 수 밖에 없다.

이 회사는 위기 타개를 위해 이미 경영합리화에 들어갔고 중국과 베트남의 저가 제품에 맞서 고부가 가치 제품 개발을 위한 R&D(연구·개발)에 집중 투

자한다는 계획이다. 원유를 수입해 가공 판매하는 GS칼텍스는 대외적인 여러 변수 등을 고려한 내년도 경영계획을 수립 중이다.

환율 하락으로 원유 도입 비용이 줄어들지만 반대로 자체 수출(매출액의 43%)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 뻔하고 국내 정유제품 생산 업체의 내수 부진으로 내년은 올해에 비해 실적이 악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GS칼텍스는 정제 마진을 높이기 위해 기존 설비에 대한 안정적인 운영 및 효율화를 꾀하는 한편 수익 향상을 위해 내년 말로 예정된 제2종질유분해시설 공사의 조기 완공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이종태기자 jitlee@kwangju.co.kr

중소도 “내년 경기 어둡다”

중소중량회 1,486개사 조사

중소기업들은 2007년에도 전반적으로 경기가 부진할 것으로 전망했다.

14일 중소기업중앙회가 5인 이상 300인 미만 중소기업 1천486개사를 상대로 실시한 ‘2007년 중소기업 경기 전망’ 조사결과에 따르면 업종별 전망 중소기업

건강도지수(SBHI, Small Business Health Index)가 85.5로 기준치 100에 못미쳤다.

SBHI는 기업경기실사지수(BSD)보다 조사항목을 좀 더 세분화해 산출하는 지수로 100보다 높으면 경기가 전년보다 좋아질 것으로 전망하는 업체가 더 많음을, 100보다 낮으면 그 반대를 뜻한다.

규모별 업종 전망 SBHI는 100인 이상이 93.9, 50-99인 사업장이 90.0, 20-49인 86.3, 5-19인 80.0 등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경기부진이 더 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업종별로는 운송장비(101.9), 자동차 및 트레일러(99.3), 의료·정밀·광학(95.6) 등은 경기가 호전되거나 약간 부진하겠다고 전망한 반면 의류(74.2), 출판·인쇄(74.7), 컴퓨터·사무용기기(76.6) 등은 경기 부진 전망이 더 심했다. /이종태기자 jitlee@kwangju.co.kr

현대삼호重 대졸초임 3,950만원

포스코건설·코리안리재보험 이어 전국 3위

영양에 본사를 둔 현대삼호중공업의 대졸자 초임이 올해 기준으로 전국에서 3번째를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대삼호중은 연봉정보제공전문회사인 ‘페이오픈’이 2005년 매출액 기준 상위 1천개 기업을 대상으로 지역별, 기업별 연봉수준을 조사한 결과 현대삼호중의 대졸초임이 3천

950만원으로 포스코건설(경북), 코리안리재보험(서울)에 이어 전국 3위를 차지했다고 14일 밝혔다.

현대삼호중 관계자는 “현대삼호중은 대졸 초임 보다 생산기술직 초임이 더 높다”면서 “이런 고임금과 후생복지 등을 통한 우수한 인력채용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영남=김현남기자 hnkim@

대우건설 CI, 금호아시아나 ‘날개’ 단다

오늘 정식계열사 편입

대우건설이 15일 금호아시아나그룹의 계열사로 편입됨에 따라 그룹 CI(기업이미지)인 ‘날개’ 마크를 달 예정이다.

14일 금호아시아나와 업계 등에 따르면 금호아시아나그룹은 15일 대우건설 인수 잔여자금을 모두 지급함에 따라 대우건설이 정식 계열사로 들어오게 돼 기존 대우건설의 ‘오리

발’을 떼고 ‘날개’ 마크를 달아 한식구가 뒀음을 분명히 할 방침이다.

금호아시아나 관계자는 “15일 대우건설 인수자금을 완납하며 이에 따라 대우건설이 금호아시아나그룹의 명실상부한 계열사가 된다”면서 “조만간 대우건설의 기존 로고 대신 금호아시아나를 상징하는 날개를 달아 핵심 계열사로 육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종태기자 jitlee@kwangju.co.kr

영역별 노무법기법 특수비법으로 돈4부터 돈3파장까지 12개월 완성!
수학을 못하는 것은 100% 선생님 책임!!

문제만 **이거** 푸는 수학공부 절대 시키지 마라!
왜?
오장본(논술유형) 문제특강 프로그램은?

4월 12일(수) 10:00 ~ 11:00 (12월 15일 금요일) 10:00 ~ 11:00

문의: 02-376-3683 / 02-574-4422

이태리가구 전문점
The 100% Made In Italy

홍 스키이스

광주광역시 동구 삼동로14길 (구도림동) 15호 021226-7507

이성명 대표이사 021226-7507 | 스킨 021226-7507 | 다이아몬드 021226-7507 | 코팅서비스 www.100459.com